

121 미국 AI 행동계획

America's AI Action Plan

국가가 AI 혁신·인프라·안보 강화를 위해 제시하는 정책 실행 계획

-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묶은 국가 단위 정책 패키지
- AI 혁신 가속화, 인프라 확충, 글로벌 경쟁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략

● AI 행동계획이란?

AI 행동계획은 정부가 국가 단위에서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종합적 정책 로드맵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발표한 「미국 AI 행동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 사례로, AI 혁신 능력 강화와 규제 완화, 글로벌 경쟁 우위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글로벌 AI 리더십·국가 안보의 세 축을 중심으로 90개 이상의 정책 조치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이전 행정부의 안전성 중심 접근과 달리 관료적 규제와 이념적 편향을 줄이고 AI 산업 확산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 AI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행동계획은 먼저 AI 혁신 가속화와 규제 완화를 중심 과제로 제시합니다. 연방 부처는 AI 개발을 방해하는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 폐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정부·민간 전반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적 편향이 섞인 'Woke AI'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연방 조달 과정에서도 사실 기반·이념 중립적 LLM만 계약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축인 AI 인프라 구축에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fab)의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기·HVAC 기술자 등 고속련 직업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인 글로벌 리더십 및 국가 안보에서는 미국산 AI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동맹국 대상 풀스택(full-stack) AI 패키지 제공, 악의적 행위자로부터의 기술 보호, 중국과의 경쟁 우위 확보 등을 핵심 조치로 제시합니다.

● AI 행동계획의 쟁점

AI 행동계획은 미국 내 AI 혁신 속도를 높이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확충과 AI 수출 확대 전략은 산업적 영향력이 큰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비판도 존재합니다. 빅테크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 안전장치보다는 혁신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접근이라는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성 행정명령(EO 14110) 철회에 따른 책임성 약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Woke AI' 규제가 AI 위험을 줄이는 정책인지, 특정 정치적 입장의 개입인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